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대학이 위기이다. 위기의 원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외적 요인으로는 '인구 절벽'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핵심인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은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국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청년 실업 문제로 대학 위기의 외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대학이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적 요인으로는 대학 내부의 보수화이다. 사학 비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 내용으로 인해 대학은 더 이상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대학과 지역

변해야 하지만 가장 느리게 대응하는 곳이 대학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 붕괴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는 차원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간략하게 대학 붕괴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대학의 구성원이 라고 할 수 있는 학생·교수·직원의 관계가 파편화되고 무너진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 공동체의 붕괴이다. 이는 2000년대를 전후로 신자유주의 논리가 대학 사회에 빠르게 전파된 결과로서 학생·교수·직원이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지 않고 '각자도생'의 길로 달려간 결과이다. 학생은 취업 전쟁에 뛰어들었고, 교수는 평가와 연봉에 매달렸고, 직원들은 경영 관점으로 수익 관리를 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대학에 대안은 있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대학 공동체의 복원이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취업 등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대학은 최소한 몇 년 동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학 공동체에 들어오는 학생들과 함께 교수

와 직원이 함께 대학 사회를 일종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이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모형을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청년 세대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미 사라진 공동체의 경험을 대학에서 수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대학 공동체는 학문과 생활과 문화와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 분야로 분절되어 있는 대학 내부의 구조부터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방치한 채, 엉뚱한 곳에서 공동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대학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지역과 별개로 존재해왔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권 정도에 기여할 뿐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학이 별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대학과 지역은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 자원이 지역 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를 고민

해야 하며, 대학 역시 단순한 취업 차원의 고민을 넘어 대학 공동체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 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고 수업과 활동, 공간 등을 결합함으로써 일종의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대학을 사고하게 만드는 일인데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현실이여야 한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성과 주의와 대학 이기주의 등이 맞물려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협력과 연계는 가능하지 않다. 대학과 지역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캠퍼스 타운이 되려면 기존 행정과 대학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관점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대학은 일종의 섬으로 존재한다. 대학이 외로운 섬으로 남지 않으려면 대학과 지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력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취업을 넘어 산업과 경제, 문화와 예술, 마을, 공동체, 일상 등 모든 영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의 관계를 상상해 본다.

종교칼럼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

는 세상을 염려하며 잘못된 권력에 저항했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정반대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필자는 목사이지만 당당하게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솔직하게 개척 교회,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등 우리나라에는 예산이나 성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대다수다. 그런 작은 교회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물론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세습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성도 숫자 등 대단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에서 이뤄진다. 마치 대기업 행태를 능가한다.

교회의 타락은 돈과 권력이다. 로마가 국교로 인정 한 후 중세기 때 교회 타락의 모습을 보고 역사가들은 암흑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던가.

바로그때도 필자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에 현재 부자간의 담임 목사직 세습으로 비난이 된 명성교회

가 속해 있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회는 몇 년 전 담임 목사직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다. 헌법(정치 제28조 6항 -목회자 대물림 금지 조항)의 세습에 관한 핵심은 '헌법 시행'과 '치리(治理)'다. 특히양심과 교회의 지유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장로교 헌법 정신이다. 총회 헌법에는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회(목사와 장로 구성) 노회, 총회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총회 헌법이다. 헌법에 근거해서 법을 시행하고 재판을 통해 처리하며 이에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잘못된 재판은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법 이상의 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돈과 권력이다.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마중물 기도회(8월6일)를 통해 설교자는 "총회 재판국이 빌라도 법정을 되신 안 된다. 한국 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잘 못했던 신사 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치욕

스런 역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은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를 손들어 주고 말았다. 빌라도의 오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재판국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시비로 오는 9월 10일 총회에서 재판국 폐지 여부와 개혁을 다루게 된다. 한국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물론 수치스러운 교회 모습 공개에 대해 흑자는 '누워서 침뱉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신다는 진리를 잊어선 안 된다.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헐어라"라고 명한 바 있다.

이미 한국 교회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다시 한 번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공법을 몰같이, 정의의 하수(河水)같이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가 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누가복음 19:46)

호모 나이트쿠스(Homo-Nightcus)와 야시장

블로그(6억 3574만 건), 트위터(103억 4111만 건, 리트윗 포함), 뉴스(4005만 건)를 통해 호모 나이트쿠스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모 나이트쿠스라는 단어 언급량이 2013년 6만 2823건에서 2016년 10만 3152건으로 64% 증가했다.

한국인이 심야 시간에 여가를 즐기는 이유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한국의 교육 및 근로 문화를 꼽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도 흐름을 반영하며 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상설 시장 외에 밤에 열렸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도깨비시장,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벼룩시장, 문화와 현실이 융합해 재생되는 예술시장형 플라마켓 및 거리 예술마켓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야시장은 당연 대세이다. 다음 소프트웨어의 호모나이트쿠스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심야형 인간의 확산을 입증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야시장이 상당히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대세'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를 목표로 개장된 부산 부평 강동야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야시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준비되지 않은 채 열렸던 야시장은 벌써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성공할 야시장의 깊은 고민과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야시장 개장'이 곧 절반의 성공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전통시장 흥망성쇠의 핵심 요소가 사람인 것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기억과 시선에서 멀어지는 시장은 그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사람이 없는 전통시장은 반드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야시장 하나를 개장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포함한 폭넓고 면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야시장의 주요 성공 요건을 제안한다면, 먼저 시장 입지 조건을 들 수 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한옥마을과 전통성당 등과 맞붙어 있어 낮 시간대 관광을 즐긴 뒤, 저녁이던 기뻐야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것처럼 말이다. 둘째는 지역 대표 음식을 두루 맛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부산 강동야시장의 '이가네 떡볶이'와 '강동 골목 할매 유부 전골', '수제 어묵' 등은 이미 마니아를 양산했다. 남포동 먹자 골목의 씨앗 호떡·비빔당면·김밥·떡볶이·츄후김밥, '부평 죽발

골목' 등 부산 먹거리 집합소가 5-10분 거리에 존재하며 '그곳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셋째는 풍부한 줄길 거리와 볼거리이다. 지방 기수와 비보이 댄스 등 천편일률적인 공연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마저도 자체 등의 지원이 없으면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무엇, 섹터는 시도가 관광객을 부른다. 대안 집은 야시장은 여름이 긴 자연 환경과 각종 생필품 등을 공급해주는 생활형 야시장으로 성장해 왔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저녁 활동과 외식을 선호하는 독특한 문화 특성이 만나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반면, 국내 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나 관광 자원 발굴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원한 부분이 더 크다. 따라서 국내 야시장은 대안 야시장과 달리 저녁을 먹은 뒤 밤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야시장을 찾는 주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야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통시장이 서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며 서민의 삶과 애환이 깃든 우리들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 야시장이 말이다.

社說

시민권익위 성공 도시철도 해법에 달렸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가 지난 7일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권익위는 '대(對) 시민 플랫폼'으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용섭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1800여 건의 생활 민원이나 정책 제안에 대한 해법을 100일 내에 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과제로 16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결정을 선택했다. 2호선 건설 방식은 민선 7기 광주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만 한다. 시민권익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다음 주까지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10월까지의 건설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민권익위의 발 빠른 행보가 몇 년 환영할 일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다. 양측은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그 같은 이견을 조율해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당장 시민들의 여론을 여론 조사나 TV토론으로 하자는 광주시 안과 속의 방식으로 하자는 시민단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화합의 소리를 이끌어 내 결론적으로 건설 방식을 저심도로 할 것인지 땅을 파지 않는 노면 전차나 간선 급행버스 체계로 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첫발을 댄 시민권익위의 성공 여부는 도시철도 2호선 해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과제를 최대 현안으로 선택한 만큼 2호선 해법을 마련한다면 시민권익위는 광주시의 자문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조기에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 투자조합 어찌다 예산만 날렸다

광주가 문화 산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 만든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1호'가 막대한 예산만 날린 채 사라지게 됐다. 문화산업 투자조합은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유망 기업 및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결성됐으나 운용 회사의 등록 취소와 적자 등으로 인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1호는 광주 시 3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 4000만 원, 민자 117억 원을 더해 총 190억 4000만 원 규모로 2012년 9월 결성됐으며 5년간 투자한 뒤 이후 2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투자금 운용은 우리인베스트먼트가, 관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맡았다. 투자 심의 의결 및 투자 이행 확인은 광주시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투자조합이 결성된 이후 타 지역 문화

기업 7곳이 광주로 이전하고 6곳이 창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 설립의 주 목적이었던 광주 지역 내 투자의 경우 30개사에 140억 원을 투입했으나 적자만 11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인 우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을 저가로 매도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광주시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권고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경기·부산의 문화산업 투자조합은 흑자로 전환돼 운용 중이라고 한다. 광주시는 가까운 시기에 30억 원을 출자해 문화산업 투자조합 2호를 발족할 예정이라는데 1호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는 아까운 예산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흑자를 내고 있는 타 도시의 투자조합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다.

無等鼓

LPGA 무대에서 한국(계) 선수들은 절대 강자다. 올 시즌 22개 대회에서 벌써 11승을 올렸다. 2017년 17승, 2016년 17승, 2015년 21승 등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단지 승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경기내용을 봐도 놀랍다. 지난해에는 4대 메이저 트로피를 쓸어 담았다. 김세영은 지난 달 손베리 클래식에서 31언더파 257타로 우승해 골프 역사에서 여태껏 없었던 대기록을 세웠다. 중계방송을 보면 가끔씩 톱10에 태극기가 5-6개

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라 했다. 보통 한국에서 2년 정도 활동한 뒤 미국 무대에 진출하는데, LPGA 투에에 진출했을 때는 루키가 아니라 프로 대회를 10개 이상 소화한 선수들이니, 이는 경험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LPGA 무대는 한국 선수들에 불리한 점이 많다. 낮은 문화와 언어, 그리고 낮은 환경과 코스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드의 분석은 한국 선수를 상대해야 하는 두려움이 내재된 견해일 것이다. 남녀가 똑같은 조건인데 PGA

감탄 혹은 부러움

투어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최경주 이후 1년에 1승을 하기도 힘들어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여자 선수들의 타고난 감각이나 부단한 노력, 가족의 헌신, 강한 성공 의지 등 남들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 아닐까.

오늘부터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이 열리고 다음주에는 LPGA 인디언인 인 테크 챔피언십이 열린다. 한국 선수들은 또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해 줄지는지.

/유재관 편집 1부장·부국장 jkyou@

기고



김진백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장

호모 나이트쿠스(Homo-Nightcus)와 야시장

블로그(6억 3574만 건), 트위터(103억 4111만 건, 리트윗 포함), 뉴스(4005만 건)를 통해 호모 나이트쿠스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모 나이트쿠스라는 단어 언급량이 2013년 6만 2823건에서 2016년 10만 3152건으로 64% 증가했다.

한국인이 심야 시간에 여가를 즐기는 이유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한국의 교육 및 근로 문화를 꼽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도 흐름을 반영하며 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상설 시장 외에 밤에 열렸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도깨비시장,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벼룩시장, 문화와 현실이 융합해 재생되는 예술시장형 플라마켓 및 거리 예술마켓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야시장은 당연 대세이다. 다음 소프트웨어의 호모나이트쿠스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심야형 인간의 확산을 입증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야시장이 상당히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대세'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를 목표로 개장된 부산 부평 강동야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야시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준비되지 않은 채 열렸던 야시장은 벌써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성공할 야시장의 깊은 고민과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야시장 개장'이 곧 절반의 성공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전통시장 흥망성쇠의 핵심 요소가 사람인 것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기억과 시선에서 멀어지는 시장은 그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사람이 없는 전통시장은 반드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야시장 하나를 개장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포함한 폭넓고 면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야시장의 주요 성공 요건을 제안한다면, 먼저 시장 입지 조건을 들 수 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한옥마을과 전통성당 등과 맞붙어 있어 낮 시간대 관광을 즐긴 뒤, 저녁이던 기뻐야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것처럼 말이다. 둘째는 지역 대표 음식을 두루 맛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부산 강동야시장의 '이가네 떡볶이'와 '강동 골목 할매 유부 전골', '수제 어묵' 등은 이미 마니아를 양산했다. 남포동 먹자 골목의 씨앗 호떡·비빔당면·김밥·떡볶이·츄후김밥, '부평 죽발

골목' 등 부산 먹거리 집합소가 5-10분 거리에 존재하며 '그곳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셋째는 풍부한 줄길 거리와 볼거리이다. 지방 기수와 비보이 댄스 등 천편일률적인 공연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마저도 자체 등의 지원이 없으면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무엇, 섹터는 시도가 관광객을 부른다. 대안 집은 야시장은 여름이 긴 자연 환경과 각종 생필품 등을 공급해주는 생활형 야시장으로 성장해 왔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저녁 활동과 외식을 선호하는 독특한 문화 특성이 만나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반면, 국내 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나 관광 자원 발굴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원한 부분이 더 크다. 따라서 국내 야시장은 대안 야시장과 달리 저녁을 먹은 뒤 밤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야시장을 찾는 주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야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통시장이 서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며 서민의 삶과 애환이 깃든 우리들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 야시장이 말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